

머물다 **Dwell 8**: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삶

연사: **Alex Lessler**

날짜: **2023년 11월 12일**

소개: 내부 성

1월에 나는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다소 이상한 책을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15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스페인 수녀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The Interior Castle"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낯선 시대에서 왔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그녀가 스페인 종교 재판 중에 종교 당국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깊은 이면에는 당신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내부 성전을 횡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친밀함, 그분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그분의 현존에 대한 인식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밀의 장소가 있어요. 빛나는 성역. 마치 자신의 주방처럼 현실적입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가장 순수한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만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네. 세계 속의 세계. 숲, 강... 이 멋진 피난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입력하다. 문간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깨뜨려라...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듣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의 흔적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은신처에 떨어뜨린 연애편지. 아기가 웃는 소리, 꿈을 말하는 남자 친구의 소리, 사랑의 친절에 관한 책, 밤에 깨어나 세상이 전쟁에 빠졌고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름 없는 슬픔 속에서 싸움을 끊으세요. 들어보세요... 그의 전화는... 멀리 있어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용기를 갖고 자신의 거친 마음이 있는 나라를 걸어보세요. 온화하게 행동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마음챙김을 하고 매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듣다. 계속 걸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멋진 왕국에 들어섰습니다!... 탐험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쉬되 잠은 자지 마십시오. 그의 팔을 향해 곧장 향하십시오... 거기에 가도록 무조건적인 허락을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마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분이 당신 자신의 존재의 핵심인 거처를 선택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혼의 중심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삶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를 시적으로 표현한 그녀의 표현은 아름답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녀가 52세였을 때, 그녀는 키가 거의 5피트도 안 되는 25세의 열정적인 사제인 *Juan d' le Cruz*(또는 십자가의 성 요한)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톨릭 교회의 '불경한 행위'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환멸을 느꼈고, 언덕에 은둔자로 살려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스우면서도 공감되는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좌절해서 숲속 어딘가에 혼자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도중에 그는 테레사를 만났고 그들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개념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었습니다.

책이 완성된 지 이틀 뒤, 성 요한은 화난 승려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9개월 동안 어두운 탐에 갇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그의 고통과 고통, 혼란, 우울, 불안,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탈출한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시인 영혼의 어두운 밤(*The Dark Night of the Soul*)을 썼습니다.

이 시에서 그는 성 테레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말한 것의 아름다움을 믿는 동시에 그분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모순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정이 고조된 후,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는 진짜인가요? 그는 좋은가요? 그는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긴장, 즉 경험과 기대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9편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VMT 1: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

- 시편 69편은 다윗왕의 시입니다.
-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이스라엘 왕 때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다윗이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썼다는 의미입니다.

○ 다윗의 생애의 하이라이트

■ 사무엘이 베밀리에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마음을 본다.”

■ 언젠가 왕이 될 제시의 잊혀진 아들인 양치기 소년입니다. ■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30년이 지났습니다.

● 사울이 죽자 유다는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 유다는 다윗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었습니다.

● 유다는 강성해졌지만 이스라엘은 쇠퇴했습니다.

● 결국 사울이 왕국을 분열시킨 후 다윗은 다시 왕국을 통일했습니다.

■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수백 가지 예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것은 확실합니다.

○ 기름부음과 임명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

○ 기다림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과 고통도 많습니다.

● 데이비드의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그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2.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 이것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초를 가르쳐 줍니다.

1.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2. “우리의 조바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물건을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문을 닫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인내심은 어렵습니다.

3.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있기 전에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 다음은 다윗의 이야기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관계가 많은 사실, 적용 지점을 암기하거나 올바른 신념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그의 타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할 좋은 사실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 시편은 우리의 영적 형성의 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자도의 감정적 발전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 우리가 저지른 실수 중 하나는 감정(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악하거나 나쁘거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냉동야채를 더 먹어라 이야기.”

■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 17:9

■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브(*leb*)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 깊은 욕구, 즉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 “나 여호와와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10

■ **Baw-khan'** 조사, 시도, 증명(“검색 및 조사”)

○ 조사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 시험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금, 사람, 마음,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욕망의 자리는 부패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Emotional Healthy Spirituality의 저자인 Pete Scazarro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가 고통, 상실, 감정을 해마다 부인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인간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이 그려진 빈 껍질로 천천히 변합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제자도의 많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슬픔, 우울증, 두려움, 분노 등 더 넓은 범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내 영성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곧 우리의 더 큰 그리스도인 삶에서 감정의 성경적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들을 노예로 묶어두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피터 스카제로

“정서적 건강과 영적 성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채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피터 스카제로

●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정서적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 그것은 당신의 영적 형성의 일부입니다.

- 감정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불확실함을 안고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우리의 감정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 불안, 두려움, 슬픔, 분노, 자만심, 무력감, 절망, 우울증, 혼란, 질투, 갈망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빨리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해지고 싶나요? 예수님처럼 되려면?

- 그곳의 여행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또는 우리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환: 시편 69편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MVMT 2: 지저분한 기도 - 시편 **69:1-29** 신학자 Derek Kitner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이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망적일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다.” -데릭 키트너

이것은 지저분한 기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정에 너무 압도되어 절망적인 말을 할 때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절망적인 일, 심지어 잘못된 일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의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그분과 함께 쏟아 붓기 위해

이러한 절망적인 감정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속해 있습니까? 표현되지 않았나요?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는 세상에 속합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포장되어 제시되지는 않지만...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심지어 부정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시편 69편...

1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이르렀사오니

2 내가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나이다. 나는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나를 덮쳤습니다.

3 나는 지쳐서 도움을 청합니다. 목이 말랐어요. 내 하나님을 찾느라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나의 원수 곧 나를 멸하려 하는 자가 많도다 나는 흠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5 하나님여,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가 당신께 숨겨지지 않습니다.

CS Lewis는 *The Screwtape Letters*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의 대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원수의 뜻을 행하려는 인간이 그분의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우주를 둘러보고 왜 자신이 버림받았는지 묻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순종합니다.”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 시편 기자 다윗이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 이런 기도는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입니다.
- 정직한 기도이다.
- 6절...

6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 이 기도의 정직함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당신의 삶과 신학에 이런 생동감 넘치는 기도를 둘 공간이 있습니까?
- 나란히 앉지 않고 바로잡는 일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 옴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의 열정적인 간청을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옴은 불확실한 시기 동안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 혼란, 절망을 표현한 것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 그는 모범으로 제시된다.
- 옴의 친구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 7절...

7 내가 주를 위하여 멸시를 참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8 나는 내 가족에게는 나그네이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나그네입니다.

- 그는 '불확실함' 속에서 고립감을 느낀다.
- 이것은 제가 방금 옴의 친구들에 관해 말한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조롱과 수치심이 자신 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합니다.
- 통지... 그는 외로움을 느낀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 9절...

9 당신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10 내가 울며 금식할 때에도 조롱을 참아야 하고

11 내가 굶은 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12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나는 술취한 자들의 노래로다

●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는 고통을 겪고 있다.

○ 이 시편에 잠재된 질문은 심오한 질문입니다...

○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 걸까요?”

○ “말소사, 왜요?”

○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는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이제 이 시편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13 여호와여, 주의 은혜의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14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15 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막지 못하게 하소서

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로 나에게로 돌아오소서.

17 당신의 종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곤경에 빠졌으니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18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 당신의 고통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 당신은 혼란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께로 향합니다. ○ 요약하자면...

■ “이 망가진 세상에서 내가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오 하느님.” ■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지 마세요. 몹시 외로워.” ■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세요! 두렵습니다!”

○ 우리는 다윗의 삶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이 절망의 시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어쩌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19 내가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 내 모든 원수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20 멸시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나를 무력하게 하였으며 내가 동정을 구했으나 없었으며, 위로를 구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21 그들이 내 음식에 쓸개를 넣었고 목마르다고 나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22 그들 앞에 차려진 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보복과 함정이되기를 바랍니다.

23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등은 영원히 굽게 하소서.

24 그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고, 당신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25 그들의 곳이 황폐하게 하소서. 그들의 천막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라.

26 그들은 당신이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박해하고 당신이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7 죄에 죄를 더하여 죄를 고소하고 그들이 당신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8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29 그러나 나는 곤고하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 그 진행이 격렬해진다.

- 시작은...

- 그들이 나를 위해 쳐 놓은 함정에 대신 걸리게 하여라.

- 하지만 심각한 에스컬레이션으로 끝나는데...

- “그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노래를 예배 찬송으로 불렀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 “How Great Thou Art”에 맞춰 - 내 적을 영원히 파괴하세요!

- 그러면 겁이 날 것 같아요.

-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의 예배서가 있습니다.

- 기도의 새로운 깊이를 가르쳐 줍니다.

- 앞서 공유한 인용문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 “성경에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해. 그분은 우리가 절망적일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다.” -데릭 키트너

-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나쁜 신학입니다.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 성경 전체를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혼란 가운데서 간절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전환: 그분은 당신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당신에게 알려 주십니다. 30절...

MVMT 3: 기도가 찬양으로 변합니다 - 시편 69:30-36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31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니라

32 가난한 이들이 이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33 여호와께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포로된 백성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34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35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재건하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36 그 종들의 자손이 이를 상속으로 받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거기 거하리로다

●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 거 하리라.”

●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충분히 오랫동안 추구한 모든 기도는 결국 찬양이 될 것입니다.” - 유진 피터슨

● 이 시편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직하게 기도한다

○ 그는 두려움을 기도한다

○ 눈물로 기도한다

○ 진노를 기원한다

● 기도로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찬양으로 끝난다.

●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서두를 수도 없고, 억지로 할 수도 없지만, 결국 끈기있게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찬양이 될 것입니다.

●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세요. 데이비드는 희망에 관심을 돌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임을 여러분은 압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서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울 수 있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슬픔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미안함, 고통, 슬픔, 심지어 당신 자신의 상함까지도 완전히 온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세요...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약속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David와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1.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음이 그분에 의해 정화되고 시험될 때, 당신은 오늘날의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4.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신실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응답: 새 포도주

답으로...

나는 수년간 내 인생에서 반복되어 온 노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짓눌리고, 압박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무엇을 할지에 관해 실제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도망칠 수도 있고, 그에게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항복할 때 당신 안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당신의 고통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놔둘 때. 그는 당신을 그 이상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의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새 포도주

분쇄하는 중

누르는 중

너희는 새 포도주를 만들고 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행복한다

당신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당신의 주의 깊은 손에 굴복합니다

당신을 믿을 때 나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그릇으로 삼아주세요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난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왔어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예수께서 새 포도주를 내게서 나오게 하옵소서